

김상훈의 세상읽기

주필



#1.
1950년대~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는 말이 유행했다. 이는 미국산 제품을 무조건 선호하던 당시 시대상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단순한 과정이 아닌 한 시대를 통과하며 차곡차곡 쌓인 미국 제품에 대한 신뢰의 역사가 함축된 표현이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3년 동안의 미군정과 6·25전쟁 기간 미국문화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유입됐다. 미제물품의 유행도 활발해졌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 제품은 좋은 품질과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수많은 사용 경험과 인소문을 통해 '미국산이면 일단 믿고 사용한다'는 무한 신뢰까지 생겼다. 당연히 미국문화에 대한 동경과 미제 선호경향이 매우 고조돼 갔고 당시 미국 물건들은 고급 사치품이자 '명품'의 동의어였다. 수입이 엄격히 제한된 시대여서 이들 물건들은 불법 유통되기 일췌였다. 미국 구호물자를 그대로 또는 조금씩 손질하거나 가공한 물건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는 불법으로 유출된

점두어 'K' 전성시대, 앞으로도 계속되길

미제 물건시장이 형성됐고 단속반이 나오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해 '도깨비시장'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1983년 수입 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도깨비시장은 쇠퇴했고 미제에 대한 선망도 조금씩 열어졌다. 현재는 한국제품이 개선되고 해외직구가 발달하면서 미제 물건은 노년층의 추억·향수 성격으로 소비되고 있다.

#2
예전 우리나라가 'made in USA'를 동경했던 현상이 전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미제' 대신 'Korea'의 약자인 'K'란 글자를 어두에 붙이는 K-팝, K-푸드, K-드라마, K-뷰티, K-패션, K-바이오, K-메디컬, K-사이언스, K-방역 등으로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무수 단어 앞에는 'K'란 글자만 깔끔하게 붙이면 전세계에 통용되는 점두어 'K' 전성시대가 열렸다든 예기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K-팝의 역할이 컸다. 단순한 장르를 넘어 미디어 기술과 결합된 K-팝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당대의 아이콘들을 탄생시키며 전세계를 열광시키며 글로벌 문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 미국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 등 영화, 드라마, 문학을 망라한 K-콘텐츠의 저력도 한몫했다. 코로나19와 K 콘텐츠 확산에 편승한 라면·김치·김밥 등 K-푸드의 해외 수요와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군수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뜻하는 K-방산도 가격 대비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2024년 수출 약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

#3.
점두어 K대열에 반도체산업도 가세하고 있다. K 반도체 역사는 1965년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의 고미 그룹이 국내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면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그 후 외자도입과 정부의 지원을 거쳐 1990년대 메모리 초격차를 만들고, 2000년대 이후 삼성·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이제는 글로벌 AI 산업의 '필수 중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는데 반도체산업 비중이 24.4% (1734억달러)나 됐다. 덕분에 비관론 일색의 지난해 경제에서 성장률 1%를 지키는 일등공신이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메모리칩이라는 하드웨어 공급권을 장악하고 있다. 최첨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로 AI산업의 미래와 생태계를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스피지수 5800 돌파 등 활황의 한국 증시를 이끌고 있고 불황기 세수 증대에 단단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제품이나 음식, 문화 등에 'K'란 글자를 어두에 붙이면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점두어 'K'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먹힌다'는 인식은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이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하다. 앞으로도 이 현상이 진화, 발전 등의 과정을 거쳐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기고

최언희

광주청소년살피디자인센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팀장



최근 한 대학교 행정실에 붙은 공고문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학사 관련 문의는 학생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수강 신청이나 성적 정정 같은 개인적인 학사 업무조차 성인이 대학생이 직접 하지 못해 부모가 대신 전화를 거는 사례가 늘면서 생긴 씁쓸한 풍경이다. 이를 단순히 유난스러운 부모의 문제라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성인이 돼도 기본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른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교육이 그동안 청소년기에 마땅히 겪어야 할 '자기주도적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방증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고,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체득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오로지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데만 몰두해 왔다. 정답을 고르는 것 외에 삶의 많은 부분을 부모나 교사에게 의존하다 보니,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결정해 볼 기회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이 주목받고 있다. OECD가 제시한 '학습 나침반 2030'에서도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체성(Agency)을 강조한다.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길을 찾는 자기주도적인

진짜 어른이 돼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도, 청소년기의 자기주도적 활동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자양분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광주청소년살피디자인센터에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청소년이 하고 싶은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 활동을 통해 지난 6년간 확인한 가치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스스로 설정한 '조금 어려운 목표'를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운다. 2020년 진행된 '청소년 정치 참여 조사 프로젝트' 당시, 청소년들은 시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른에게는 전화 한 통일지 몰라도, 청소년에게는 거절의 두려움을 뚫고 사회와 소통하는 커다란 도전이었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법을 익히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둘째,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하는 유연함을 기른다. 프로젝트는 결코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 단계에서는 수많은 변수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청소년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설정한 과정이기에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헤쳐 나간다. 셋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낮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부딪히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목표를 수정하며 끝까지 마무리하는 책임감을 익힌다. 이때 활동을 돕는 어른인 '길잡이'는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아니라, 냉철한 조언자로 존재한다. 이

는 청소년에게 무조건 네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현실적인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심어준다.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했던 청소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화되는 과정을 보며 자신감을 얻는다. 2022년 '농인을 위한 발명품 제작 프로젝트'가 그랬다. 코딩의 시행착오를 거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직접 만든 발명품을 농인에게 시연하며 청소년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성공 경험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몸의 감각을 일깨워준다. 입시 공부나 책상 앞에 앉아 머리와 손만 쓰는 과정이라면, 프로젝트는 입과 발, 그리고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야 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목표를 위해 발로 뛰며, 활동 후에는 회고를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접두어 있던 감각을 회복하며 삶을 개척할 에너지를 얻는다. 어른이 되면 청소년기보다 책임져야 할 일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아진다. 준비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이들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프로젝트 활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입시라는 숨 가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해보는 경험, 그 작지만 소중한 성취감이 쌓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진짜 어른'을 만든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어른이 될 연습을 할 시간이 절실하다.

사설

지역 백년가계, 맞춤형 지원 절실하다

백년가계와 백년소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대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백년가계는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으로 증기부가 공식 인정한 점포이고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동종의 사업을 지속해 온 사람으로 증기부가 인증한 소상공인을 뜻한다. '백년 이상 존속·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명칭이 '백년00(O)'이었다. 이들에게는 지정서·인증현판, 창업이야기 등을 담은 이야기판인 스토리보드는 물론 온·오프라인 홍보, 판로 지원, 경영환경 전반 컨설팅·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등이 제공된다. 현재 전국에 백년가계와 백년소공인이 각각 1407곳, 9199 지정돼 있는데 광주에는 구분없이 동구 21곳, 서구 10곳, 남구 8곳, 북구 9곳, 광산구 15곳 등 62곳이 있다. 전남에도 여수시 15곳, 순천시 18곳, 광양시 2곳, 강진군 3곳, 고흥군 2곳, 구례군 2곳, 나주시 4곳, 담양군 3곳, 목포시 7곳, 무안군 2곳 등 70곳이 있다. 이들은 각각의 오랜 업력과 기술, 전문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맛과 멋을 보유한 브랜드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마저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폐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실제로 문제인 전 대통령이 광주 방문시 오찬을 즐겨 했던 생고기 비빔밥 전문점인 광주 동구의 A식당은 치솟는 원재료비 등을 견디다 못해 최근 영업을 종료했다. 또 1989년부터 2대에 걸쳐 30년 이상 운영해 온 동구 'B빵집'도 밀가루, 설탕 등 핵심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았다. 수십 년간 금속 창호 제조 외길을 걸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C업체도 최근 건설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의 폐업이 대를 이어 지역의 맛과 기술을 지켜온 '유형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화적·경제적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지속될 수 있게 경영 안정 자금,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예기다.

영암 대불산단 '재생E 직거래' 성공 기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내 재생에너지가 직거래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인근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의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한국산단공단, 한국중부발전, 케이씨엔, ㈜세진엔지니어링과 함께 '대불산단 RE100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단내 자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입주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돕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대불정수장에 올 상반기중 구축 예정인 3MW급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입주 기업인 케이씨엔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 전기공급사업자로 참여하고, 세진엔지니어링이 발전설비 구축을 맡는다. 영암군과 한국산단단지공단은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기 공급방식이 온사이트 PPA(Power Purchase Agreement·직접전력구매계약)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통상 이 방식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쳐 먼거리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오프사이트 PPA와 달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생산지 부지 내 또는 바로 인접한 기업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소와 소비 기업이 약 60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래로 승인을 받은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사실 대불산단은 그동안 전력소비가 많은 조선업 중심 산단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과제였다.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수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영암군은 이번 직거래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현재 10%대인 대불산단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20%대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산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이 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연금(햇빛연금)' 제도를 도입, 발전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도 조성기로 했다. 기업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 주민에게는 햇빛연금을 제공하는 이번 에너지 직거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취재수첩

지역발전 위한 정책선거를

이산하 정치부 차장



광주와 전남이 다시 뜨겁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으레 치러오던 4년 주기의 행사가 아니다. '전남광주특별자치'라는 거대 담론이 현실화되는 국면과 맞닿아 있어서다. 최근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시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디테일'이 중요하다. 단순히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겠다'는 구태의연한 약속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통합 이후 산업 배치, 인프라 확충, 교육,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 대응 등을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해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험한 길은 이끄는 이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화려한 이력보다 그들이 쥐고 있는 '통합 설계도'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실종되는 인물·정책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다. 이번 선거가 '통합'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은 정치적 선택의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인지, 그 해답은 결국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공약과 시·도민의 냉철한 시선에 달려 있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370-7000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